

KC NEWSLETTER

GLOBAL GREEN ENVIRONMENT COMPANY

www.kcgreenholdings.com

THE HOT ISSUE



*Have an opportunity
to listen to what they do*

AFFILIATED COMPANIES

KCKR 우수 공급사 EcoCyle SRF 설비
AGLS 유리심포지엄 KCHM KOSHA18001



스마트 시대의 지식 경영
기획특집 “나도 짝을 만나고 싶다”
Hot Place in 홍대





FEATURES

04 창립 40주년 제언사

05 2013년 시무식

06 2013년 첫 FMM

08 EcoCycle 소식

— SRF 생산설비 설치

09 안성유리공업(주) 소식

— 유리신포지엄

10 KCHMI산업

— KOSHA 18001

11 KC 코트렐

— JDA 투자협정서

— 포스코 우수 공급사

— SNNC 능력증강 사업

— 인도 이사회

15 Special 특집

— 짝

20 K-ONE 특집 발췌

— 스마트 시대의 지식경영

22 우리가 쓰는 K-ONE

26 여행 이야기

30 함께가기 좋은 여행

31 HOT Place

33 다 같이 공부하자

FROM THE EDITOR

KC 뉴스레터는 매월 KC그린홀딩스와 관계사 (환경엔지니어링 부문, 환경서비스 부문, 친환경설비제조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하여 발간되는 소식지입니다. 뉴스레터 편집팀은 매월 각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KC의 임직원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는 2013년 1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 그리고 KC 코트렐 첫 FMM(First Monday Meeting)에 대한 소식과 포스코 우수 공급사 초청 간담회 등 KC코트렐관련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베를리아이에스케이씨에코사이클(주)의 SRF 생산설비 설치 공사, 안성유리공업(주)의 유리신포지엄 후원 및 논문 발표, KCHMI산업(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 취득 등, 관계사 소식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식경영팀에서 '스마트 시대의 지식경영' 특집 발췌 기사를 작성 하였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경영, K-ONE에 대해 되돌아 보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KC코트렐의 업무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주말, 연휴를 이용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회사 주변 맛집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새해 첫 특집 기사로는 '나도 짝을 찾고 싶다'를 통해 새해 새로운 짝을 만나고 싶은 KC가족들을 소개하였습니다.

KC 뉴스레터의 기사는 KC 임직원 모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 편집팀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나 좋은 정보가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뉴스레터 편집팀으로 연락 주시면, 기쁨 마음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뉴스레터 편집팀 배상



KC GreenHoldings

지원팀	이상민 팀장
지원팀	배수정 과장
기획팀	윤재연 대리
기획팀	여주희 대리
지원팀	하혜진 사원
EPC	
기술연구소	홍정희 팀장
해외사업부	염동균 선임
해외사업부	김재수 선임
제철사업부	김규백 대리
재경팀	이강호 대리
전략구매팀	정희정 사원
지식경영팀	이상한 사원

Environmental Service

KCLS	정문택 상무
EcoCycle	서정철 부장
KCHM	최성관 차장
KCHM	박은향 사원
KCES	이정식 과장
KCEC	김유화 사원
CHKOR	조은주 차장

Manufacturing

NWL-P	정행순 차장
CHKOR	조은주 차장
AGLS	홍세라 주임

Renewable Energy

KCEN	이유미 사원
------	--------

창립 40주년의 제언

KC코트렐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까지 대기환경분야에서 GLOBAL LEADER가 된다는 VISION을 제시한 바 있으며 중국, 영국, 미국, 베트남, 인도, 대만 등의 현지법인과 함께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걸쳐 대기환경설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연구개발 강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UP-GRADE, 지식경영시스템 도입, 인재개발 프로그램 및 자기계발 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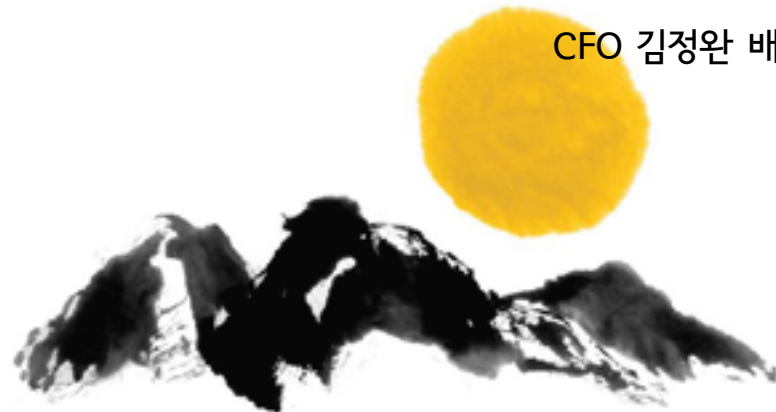
KC코트렐은 이제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CHAMPION 기업이 되기 위한 관문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핵심 자원인 임직원 들께 두 가지만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업무가 두 배 늘었다고 두 배로 일하지 말고 업무의 효율성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조직의 역량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거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보다 눈 앞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체계화하고 MANUAL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서부터 실행계획 수립, CHECK LIST에 의한 추진현황 점검, 결과 분석의 전 과정을 가시화하고 참여자 모두와 공유함으로써 개인 역량의 합보다 몇 배 이상의 조직 역량으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큰 그림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회사의 MISSION과 VISION, 중장기 목표와 경영전략, 업무의 최종 산출물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조직의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구성원 모두가 항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SMART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할 때 내부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큰 힘을 발휘하고 대를 이어 진정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KC코트렐의 영원한 성장과 임직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CFO 김정완 배상



2013년의 첫 시작, KC그린홀딩스 시무식

KC그린홀딩스는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코트렐 및 그린홀딩스 대표이사 외 임원 20명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일 본사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한해 일정에 돌입하였다.

이 날 코트렐 총 부괄 담당인 서동영 부사장은 2013년을 대 도약을 위한 한 해로 규정하며 지난해의 험난했던 과정을 딛고 경기불황에 맞서 새 기술과 새 시장을 개척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전개를 이어나가길 다짐했다. KC만의 전통인 임직원 간의 신년 악수를 하며 새해덕담을 나누는 신년하례로 식은 마무리되었다.

올해는 시무식에 참가한 모든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건강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응원의 인사를 나누었다.

2013년 첫 번째 월요일 First Monday Meeting

-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올해를 바라본

2013년 첫 FMM 회의가 7일 개최되었다. 이번 FMM은 2012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각 분기 성과 보고회로 진행되었다. 특히 실주 했던 품목까지 아우르며 지원기관과 영업부서 그리고 해외법인의 소통으로 사업방향공유를 통하여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길 다짐하였다. 2012년의 활동 성과에는 HSINATA 준공, BRAZIL 수주, 삼척 수주, KM선포, 인도네시아 수주, 모로코 수주, SK 수주(터키 투판벨리), 마렌수주, SCRUBBER 준공, 우수환경 산업체 선정, 안성유리 이로준공, 태안화력 탈황설비, 당진 수주 등이 있다. 지난 해, 우리가 잘해온 일을 되돌아 보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뜻 깊게 준비할 수 있는 자리였다. 침체된 건설 경기와 전 세계적인 경제활동 저하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KC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동영 부사장은 2013년은 '혁신의 해'로, 모든 사원이 기존의 익숙한 것과 결별하여 새로운 일을 찾고 그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다루어 내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무결점 완벽처리로 혁신의 해를 만들어 낼 것을 강조하였다.

포스코 국내외 우수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상생의 시너지 창출에 감사

- 42개 PCP공급사에 인증서, 15곳에 감사패 수여



포스코가 1월 4일 국내외 우수공급사 57곳을 초청해 신년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패밀리 경영에 적극 참여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포항 청송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포스코 인증 우수공급사(PCP; POSCO CERTIFIED PARTNER)로 선정된 42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우수한 품질력으로 포스코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국내 공급사 10곳과 해외 공급사 5곳에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를 받은 공급사 가운데는 동반성장협의회 2~4차 공급사 대표로 큰 활약을 펼친 청우피앤티 등이 포함됐다.

한편 한 해 동안 가장 기여도가 높은 공급사에 주는 '올해의 공급사' 상은 자재 부문에서 신일인텍이, 설비부문에서 동방플랜텍이 수상했다.

이날 박한용 사장은 "올해는 함께하는 혁신활동(TOGETHER), 주인의식 함양(OWNERSHIP), 철저한 실행체계 구축(PERFORMING)을 통해 포스코 서플라이체인이 글로벌 톱이 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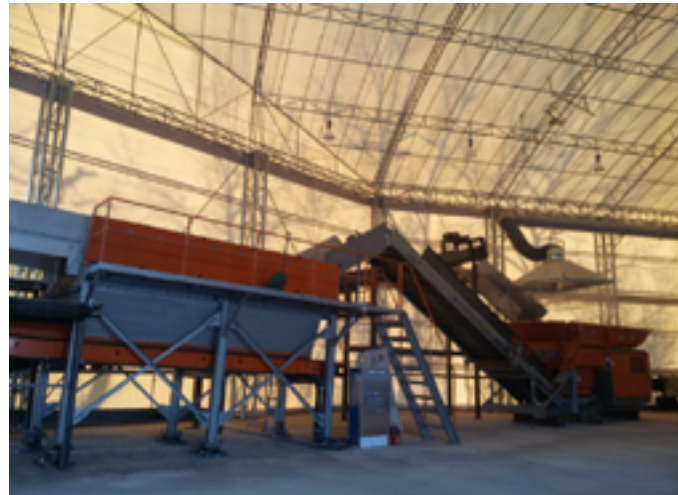
이어 이재우 구매전략그룹리더는 2013년 포스코의 구매방침을 공유하며 "포스코와 함께 최고의 구매가치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되자. 이를 위해 글로벌 최적 조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한 위기대응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의 공급사로 선발된 신일인텍 노신열 대표는 "포스코와 함께라면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제품으로 앞서가는 기업'이라는 신일인텍의 경영방침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하고 "올해의 공급사로 뽑힌 만큼 내년에는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과 독일 등 해외에서 참석한 공급사는 포스코 서플라이체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혁신경영을 위해 불확실·불안정·불연속을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박 터뜨리기에 이어 구매담당자들은그간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는 특별 이벤트를준비했다.

포스코와 공급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많은 이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 [포스코신문, 952호, 1/10 발행]



VEOLIA ES&
KC ECOCYCLE CO., LTD.

SRF 생산설비 설치공사

베올리아KC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SRF 제도하에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파쇄설비를 지난 12월18일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운전을 거쳐 1월 정상 가동을 위해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설비가 정상가동이 되면 기존 설비에서의 RPF고형연료 생산의 품질은 더욱 좋아지며 신규 설비에서는 고단가의 폐기물을 영업대상품목으로 하여 반입대상 폐기물의 폭이 넓어지며 운영상의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베올리아KC는 화석연료 고갈과 고유가에 대비한 폐원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중점을 두고 폐자원 에너지 확보와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폐자원 에너지활용의 중요성을 대변하고자 더욱 분발할 것이다.

구분	10TON/H
시설 내용	방지시설 신설
처리능력	- 여과집진시설 설치 (30HP)
파쇄시설 신설	- COMPRESSOR 설치
- 파쇄기 설치 (520HP)	300M3/MIN
- 진동체 선별기 설치 (15HP)	

구분	시설 내용	처리능력
파쇄시설 신설	- 파쇄기 설치 (520HP) - 진동체 선별기 설치 (15HP)	10ton/h
방지시설 신설	- 여과집진시설 설치 (30HP) - COMPRESSOR 설치	300m ³ /min

안성유리공업(주)

유리심포지엄 후원 및 논문발표

2012년 12월 7일 한국세라믹학회 유리부에서 주관하는 제27회 유리 심포지엄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유리심포지엄은 유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정보 공유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금년에는 첨단 디스플레이, 에너지, 연료, 강화유리 가공, 광학렌즈 등의 논문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유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심포지엄의 후원사로서 참여하여, 안성유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정완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에서 향후 유리 산업의 성장은 창조적 기술 융합을 통한 제품혁신, 공정혁신과 신소재 시장의 개척 및 확대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산학연의 정보공유, 공동연구개발 및 협조를 강조하셨으며, 기술연구소 배정한 차장은 “GLASS PROCESS의 에너지 및 CO2 절감을 위한 ENERGY MANAGEMENT SYSTEM연구”란 주제로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관리 방향과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문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성유리는 이렇게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논문발표 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친환경소재인 유리를 통해 선도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완 대표이사 축사
‘GLASS PROCESS의 에너지 및 CO2 절감을 위한 ENERGY MANAGEMENT SYSTEM연구’ 논문발표
기술연구소 배인규 주임, 배정한차장, 김정완대표이사, 이선영상무

KC한미산업(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KOSHA18001)

당사는 작업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무재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사의 안전보건담당 전풍림 감사님의 컨설팅 지원 아래 2012년 3월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작업을 진행하여 11월 22일 드디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신 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획득을 계기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안전보건 관리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하여



인증번호 제 1,263 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 증 서

인증기준 KOSHA 18001

사업장명 : KC한미산업(주)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6길 103

유효기간 : 2012. 11. 22 ~ 2015. 11. 21 (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KOSHA 18001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장



KC한미산업(주)
화이팅!!!



KC코트렐(주)

2012년의 끝자락에 들려온 기쁜 소식



세계수준의 환경설비 KC코트렐 중국 JDA와 투자협정서(JDA) 체결

KC코트렐은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중국 격맹과 발전설비 사업에 동반진출체결을 하였다. 현지시간으로 12월 24일, 중국 산서성 태원에서 중국 격맹국제에너지유한공사(격맹)와 '탈질설비 촉매재생사업'에 관한 투자협정서(JDA)를 체결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부터 기술 설명회와 각종 시장조사 및 사업 가능성 분석 그리고 기술 실사 등을 시행 한 끝으로 이행되었다.

격맹은 중국 산서성 정부와 한국전력이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으로 발전사업 뿐 아니라 탄광사업까지 병행하고 있는 에너지기업이다. 최근 중국은 제 12차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의 주요 환경정책으로 '탈질소'를 내세우면서 화력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대부분의 발전소에 탈질설비가 설치되고 촉매제 생산 공장들도 설립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남부발전은 촉매재생주기 및 발전소 탈질설비 성능과 효율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KC코트렐은 촉매재생 기술을 제공하고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력사업에서 KC코트렐은 세계수준의 환경설비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되었다.

KC코트렐(주)

2012년의 끝자락에 들려온 기쁜 소식



지난 4일 포스코에서는 2013년 우수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 역시 KC코트렐은 자리를 빛냈다.

이번 선정은 2012년 동안의 제철설비에 대한 안정공급과 우수품질로 인한 상으로, 나아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구축을 기여한 데에 대한 감사패로 주어졌다. 포스코는 납품실적과 품질, 가격, 납기 등. 공급사 평가시스템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이번에도 KC코트렐이 초청된 것은 그만큼의 안정적이고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기에 매해 주어지는 이 상은 의미가 남다르다.



KC코트렐(주)

2012년의 끝자락에 들려온 기쁜 소식



2012년 12월 27일, (주)에스엔엔씨와 KC코트렐 간에 환경설비 계약 체결식이 이루어졌다. 이는 광양 SNNC FENI #2기 증설공사 설비로, 총 계약금액인 215억으로 체결하였다고 코트렐 관계자는 밝혔다.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 28일 부터 2014년 5월 30일 까지며, 능력증강사업 환경설비 공급 및 시공을 위해 SNNC와 코트렐은 광양 증설공사를 돌입하게된다.

2012년의 마지막,
그리고 2013년의 멋진 시작,
올 한해 작년 보다 조금 더 멋진
KC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KC코트렐(주)

저 멀리 인도에서 개최된 이사회

한 해를 정리하며

KC코트렐은 각 법인 이사회를 초청하며 이사회를 통해 사업보고 및 내년사업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12월 13일, KC코트렐 본사사옥으로 인도법인을 초청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 보고에 이어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심의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인도에서 보내온 소중한 메일

보낸 사람: PRITISH KUMAR NATH
보낸 날짜: 12/19/2012 8:17:51 PM
제목: MEMORABLE MOMENT!

RESPECTED SIR,
IT IS A PLEASURE FOR ME TO
SHARE WITH YOU, ONE OF MANY
MEMORABLE MOMENTS OF MY
FIRST VISIT TO KOREA.
THANKS WITH WARM REGARDS,

PRITISH.

기억에 기리남을 순간들
(좌측부터)
Pritish Kumar Nath, 이태준 법인장,
박승원 전무, 이태영대표이사, 서동영 부사장



살만한 세상이 되고, 갖출 것 다 갖추었고 내가 안 갖춘 것
을 바라는 '비현실적인 배우자 조건'이 이 시대의 결혼이 늦
어지고, 줄어드는 이유라고 어느 분석가는 말했다.

70년대 전만하더라도 결혼은 당장 먹고 살아갈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는 점에서 아주 가치 있는 행위였다. 하지만 정규
적 고등교육과정이 당연한 이 시대의 미혼남녀는 결혼에 대
해 단순 생존기반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더 큰 '이상'이 존재한다.

KC에 숨어 있는, 엄선한, 괜찮은 그들을 소개한다

품절이 되기 전 빨리 전자우편으로 구매 의사를 알려라.
OECD 최악의 결혼률 수치가 주저 없는 당신의 클릭으로 변할 수 있다.



남자 1 호 (33세)

당신을 만나 더 좋은
사람이 되고픈
등산과 요리가 취미인
장래 CEO

그녀...

긴 생머리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분
하얀 셔츠가 잘 어울리는 분
손이 차서 따뜻한 손이 필요하신 분
워 사항이 부족해도 꽃등심 좋아하시는 분

NDCHAN@DAUM.NET



남자 2 호 (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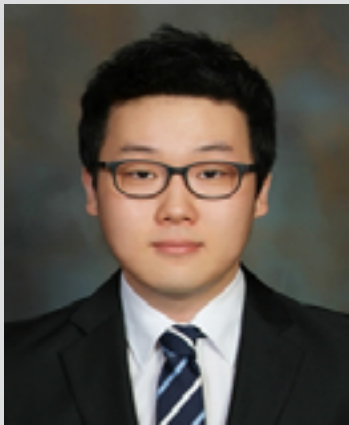
수렵자격증 취득 예정
(사냥꾼 라이선스)
사냥꾼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각종 산과 들을 다니며
사냥을 할 계획

그녀...

거친 들판의 잡초 같은 여성분.
0102055149* 어머니 핸드폰 번호.
먼저 인성검사 통과 후 번호가 제공됩니다.

남자 3 호 (33세)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아들 딸 구분 없이
두 아이를 사랑하는
싸이같은 남자



그녀...

라면을 사줘도 맛있게 먹는 여자
강남 스타일을 아는 그녀면 됩니다.

SANGHAN@KCGREENHOLDINGS.COM

여자 I 호 (29세)

만남과 결혼이 배움과
배려가 기본자세인 것을
아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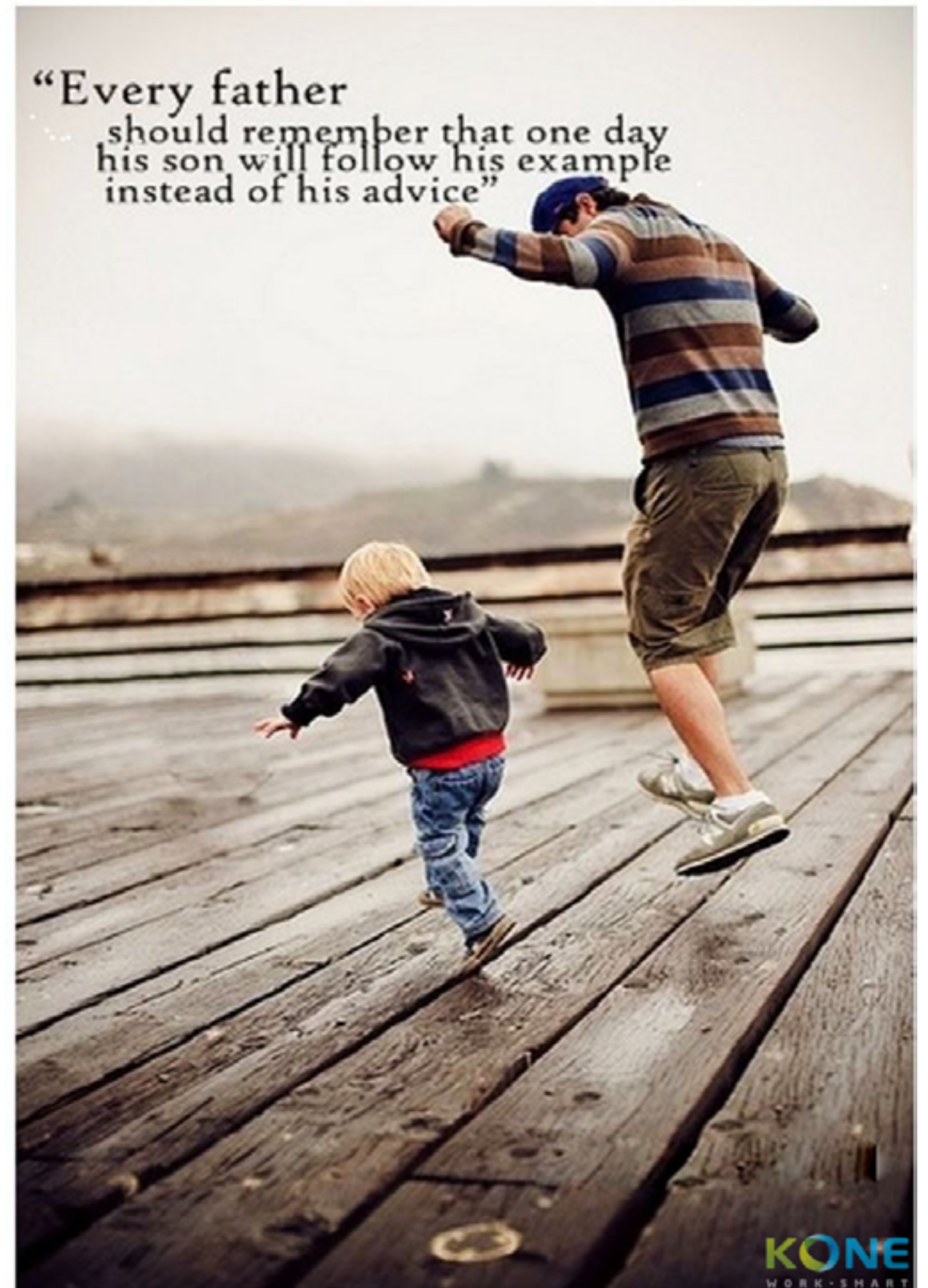
그...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가족과 일을 헤쳐나가기 충분한 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생각 깊은 사람.

HYEJIN@KCGREENHOLDINGS.COM



나도 짝을 찾고 싶다..



“Every father
should remember that one day
his son will follow his example
instead of his advice”

KONE
WORK-SHARE

스마트 시대의 지식경영

기사, 편집_ 이상한 사원



지식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식이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이를 조직의 자산으로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식경영은 그저 지식을 쌓는데 불과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한 지식관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A씨는 10년차 직장인이다. 신입사원 시절 어깨 너머로 선배들의 노하우를 터득해온 그는 자신이 가진 업무 지식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후배들이 입사했지만 과거에 그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후배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나눠줄 생각이 없다. 그것은 자신만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A씨는 오랫동안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지식이나 정보가 일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 취득 비용이 거의 무(無)에 가까워지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성은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발휘하는 문화가 경쟁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는 기업문화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식의 공유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A씨와 같은 직장인들이 조직 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 문화에 소극적이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또 권위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고급정보의 공개

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GE의 수석부사장 겸 최고학습책임자인 스티븐 커 박사는

“회사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과거 지식경영(KM:KNOWLEDGE MANAGEMENT)을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지식경영은 곧 한계를 드러냈다. 많은 기업들이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경영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거나 온라인에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방법론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활발한 지식결합과 실행을 통한 조직성과 창출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워크 스마트를 위한 지식경영은 단순히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식의 창출, 공유는 물론, 지식의 구현을 포함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워크 스마트 실천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첫째,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인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창조적 지식창출이 지식관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의 공유가 지식을 KMS에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식과 아이디어에 살이 붙는 ‘살아 움직이는’ 지식교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교류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동료들과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지식공유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개발이 필수적이다. 고객, 외부 전문가 등 조직 외부와의 지식결합을 통한 개방형 혁신도 필요하다.

셋째, 조직 내의 지식이 지식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창조적 조직성과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경쟁을 완화하고 행동을 중시하는, 즉 실행에 집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부서 간 치열한 경쟁에 시달린 구성원들은 지식공유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 지식을 공유하면 누군가가 그 내용을 훔쳐 가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지식을 내놓지 않는데 괜히 나만 정보를 내놓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창조이론의 대가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는 하바드비즈니스리뷰에서

“지식창조는 직원 개인의 참여 없이는 달성될 수 없으며,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식이 내외부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공유에 따른 피해의식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지식을 공유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 출처 : 월간 혁신리더 2011년 5월호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경영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돌아보는 K-ONE

기사, 편집_ 이상한 사원



지식(K)이 으뜸(ONE, First)이다.
지식(K)이 우리의 근원(ONE, 原)이다.
KC코트텔이 일등(ONE, First)이다.
KC코트텔은 하나(ONE)다.

K-ONE

21 세기는 IT사회, 지식 정보사회라는 말을 많이 한다. 20세기가 산업과 금융 자본에 기반한 패러다임 속에 성장해왔다면 우리가 현재 보내고 있는 21세기는 바로 지식에 기반한 성장이 주가 될 것이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지식경영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경영방식의 주류이며,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살아 남기 위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식경영'의 기반인 "지식"이란 무엇일까. 흔히 지식을 어려운 논문에 나오는 학문적 산출물이나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지식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고상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재래시장에 가서 더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법, 자동차 연비를 좋게 하는 주행법 등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식이다. 그

리고 업무를 처리할 때, 몇 일이 걸려 처리하는 일을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지식이다. 즉, 어떠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지식"인 것이다.

왜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토지와 노동력에서 자본으로, 다시 자본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도 변화해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는 지식이 바로 그 것이다. 지식을 축적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기업이 살아남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경영'이란 이런 지식을 조직구성원들이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다양한 지식을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간파, 수년 전부터 지식경

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시도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영의 두 가지 전제조건

첫 째는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둘 째는 시스템에 담겨 있는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려는 구성원들의 의욕, 즉 자율적·창조적 조직문화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첫째는 지식경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고, 둘째는 지식경영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어느 직원이 한 보직에서 3년을 근무했다고 치자. 그 사원은 3년을 근무하는 동안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을 것이다. 좀더 정확하고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있을 것이며, 대외 유관기관과의 관계

에 있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얘기를 하면 일이 쉽게 풀린다든가, A 물품을 구입할 때는 B 거래처가 품질이 우수하다든가 하는, 공식적이든 비 공식적이든 자기가 터득한 지식이 3년 동안 상당히 쌓였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지식이, 그가 다른 보직을 받아 떠나는데 동시에 사라진다면 조직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될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모아서 후임자, 더 나아가서 조직 전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면 결국 그 지식은 사장될 것이다. 지금까지 아마 개인 컴퓨터나 외장하드에 문서로 남겨 놓거나 서버에 폴더를 만들어 남겨 놓겠지만, 그것도 후임자에게 전달할 뿐이지 전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현재 K-ONE이 과거 서버 폴더나 개인PC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과 비교해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불편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진정한 KC코트텔

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베이스를 전직원이 상당 기간 축적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은 엄청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며, 사람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요인인 자율적 • 창조적 조직문화의 형성이 왜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인가. 훌륭한 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치자. 그러나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생산해 내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자료가 축적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보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즉, 그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구성원들의 자율적 • 창조적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의욕에 불을 댕기기 위해서는 지식경영에 맞는 업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전화로 요청해 이메일로 받고, 공유해야 할 자료를 메신저로 전송하고 개인 PC에만 저장하거나 인쇄해서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식경영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CoP에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면 지식경영시스템의 즉시성과 편리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검토해야 할 서류를 게시글로 올리고, 팀 내에서 서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진행을 한다면, 나중에 글을 보는 사람이 해당 업무에 대한 이력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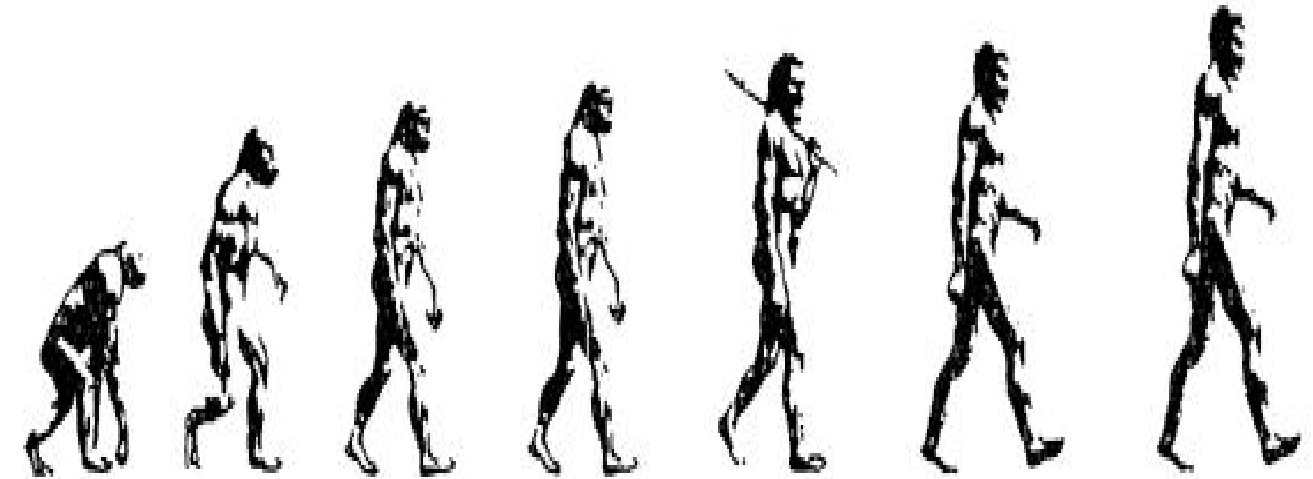
지식경영 시스템 성공적으로 연착륙 하려면.

지금까지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많은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경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첫째는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고, 둘째는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참여라고 한다.

지식경영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전 임직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지식경영팀에서는 더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각종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KC가족들을 괴롭힐 예정이다. 그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여담 한마디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지식경영 TF에 소속되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개개인이 가진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대화 말미에는 “글쎄 과연 될까”라는 말을 종종 들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수궁이 가기는 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추진해 온 정보 전산화 작업에 대한 인식과 과도한 업무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물론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얼마 안가 몇 배의 괴로움으로 닥쳐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작년보다 더 어두운 경제상황, 아직 언제 회복기를 맞이할 지 모르는 경제상황이라고 하지 않는가. 지식경영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이 변화에 대응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지식경영팀은 더욱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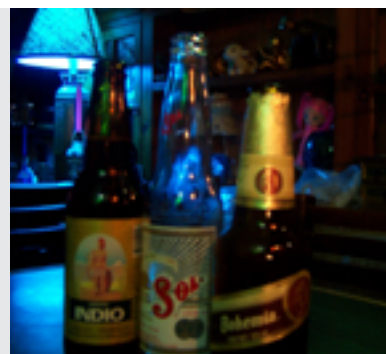
기사 이상한 사원

*본 기사는 지식경영팀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음



MEXICO

살벌한 매력을 가진 나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천국이 있는 곳,
내가 다녀온 멕시코는 그런 나라였다. “라파라파 아라파” 몇 년 전 전국민이 외치던 유행어,
멕시코가 아닌 메끼꼬에서 온 개그콘서트의곤잘레스, 그래서 아마 가보지 않아도 이미 멕시코는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가 되었다. (사실 이 말은 스페인어가 아닌 인도네시아어이다)



멕시코는 역시 맥주가 아닐까? 도착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맥주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멕시코를 가기 전까지 내가 아는 멕시코는 데킬라와 코로나 그리고 마리아치가 전부였다. 그래서 멕시코에 가면 술과 음악에 취해 호느적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며 검색한 멕시코의 가장 많은 연관어들은 피살, 총격전, 갱단, 그리고 마약이었다.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는 절대 술 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미국에서 멕시코시티로 넘어가는 비행기에서 나의 다짐은 코로나를 보는 순간 무너져 버렸다. 미리 느끼는 멕시코라며 한잔 두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비행기는 나를 멕시코 시티에 내려주었다.

시내로 향하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멕시코의 택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폭스바겐 비틀’이 택시로 활동하는 나라, 어떻게 60년 이상 지난 차량이 그 것도 택시로 버젓이 시내를 활주하고 있는지, 노면과 나의 몸을 혼연일체로 만들어주는 승차감에 흡사 내 몸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저녁시간이 되어 나는 일단 배를 채우기 위해 번화가로 향하였다. 북적 이는 거리에서 무얼 먹을까 고민하던 찰나 젊은 친구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한가판대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무슨 특별한 음식을 팔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나 하고 봤더니 햄버거였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햄버거였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던가 허겁지겁 혼자서 2개나 해치워 버렸다. 그런 내 모습이 신기한 건지 아니면 누가 봐도 여행객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멕시코인들과는 다른 나의 복장이 신기한 건지 내가 햄버거를 먹는 내내 주변에서 있던 현지인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

봐 주었다. 난 누가 머라 해도 여행객이니까. 길거리 음식을 사랑하는 여행객.

멕시코인은 코카콜라를 마시고 미국인은 멕시코 맥주를 마신다는 말처럼 코카콜라가 멕시코의 대세인가보다. 거리에 어렵지 않게 1.5리터를 들고 마시는 사람들, 멕시코는 코카콜라에 설탕 대신 사탕수수를 넣어 맛이 다르다는데 잘 모르겠지만, 기분은 뭔가 더 청량한 느낌이 들었다.

허겁지겁 저녁을 먹고, 거리를 걷다 맘에 드는 술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멕시코에 왔으니 코로나, Sol 등 멕시코의 맥주와 데킬라를 맛봐야 되지 않는가. 멕시코에 오기 전 한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맥주 3병을 마시고 난 내가 목을 곳을 찾아 다녔다.

다음 날, 나의 무식한 행동에 사람들이 경악했다. 늦은 시간까지 그 음침한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은 ‘나 잡아가십쇼’ 라는 뜻인데 지금 이렇게 눈뜨고 돌아다니는 것이 신기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아무렴 어떤가 멕시코에 도착한 이상 난 멕시코인인데.





멀리서 피라미드를 보고 ‘오~~~’라고 나왔던 함성이 계단 앞에 서는 순간 ‘아...’라는 탄식으로 바뀌었다. 대략 250개의 계단. 높이 66미터. 험퍽이며 계단을 오르고 나니 힘들인 보람이 있었다. 가장 큰 해의 피라미드에서 보이는 달의 피라미드,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일명 ‘사자(死子)의 길’ 다량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인신공양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측되는 달의 피라미드로 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길이었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해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에 올라 어떤 모습이었는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들의 모습을 내 머리 속에 나만의 모습으로 그려보았다. 햇불을 들고 인신공양을 하고, 풍족한 삶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는 고대인들.

성모가 출현한 성지

멕시코의 또 다른 성지가 바로 과달루페 성당. 교황청에서도 1531년 성모가 출현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진정한 성지로 불리우고 있다. 그래서 (고) 요한 바오로 2세도 생전에 과달라페 성지에 대한 애착이 깊어 이 곳을 수 차례 방문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방문 당시의 모습들,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과달루페 성당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단 하나의 기둥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당 건립 당시 지질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한 쪽 성당은 지반이 침하되어 무너질 위험해 처해있지만, 이는 실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까.

남미 최고의 성당

일명 멕시코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은 멕시코 시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건축기간만 300년! 세상에나 말이 300년이지 몇 세대를 돌아 완성된 건물인가. 만들기 시작한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죽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 그리고 소칼로 광장에 있으며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아즈텍 문명이

**성모, 요한 바오로 2
세가 머물던 곳, 그 자
리에 잠시 머물러 나
자신을 돌아본다.**



수도에 세운 신전이 있는 템플로 마요르. 우리 나라의 많은 유적들이 일본 식민 시절 도난 당하고 훼손당한 것처럼 이 곳 역시 스페인의 정복자에 의해 심각하게 파손되어 지금은 형태만 남은 수준이다. 형태만 남았으니 난 형태만 보고 바로 현대 문명을 만나러 씽씽~

샤키라!

우연히 만난 어여쁘고 색취한 누나

멕시코 대통령궁을 구경하려다 일단 배를 채우기 위해 소칼로 광장을 둘러싼 건물 옥상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대통령궁도 대통령궁이지만 일단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없이 식당으로 향하였다. 어딜 이동할 때 마다 느낀 것이 다들 자꾸 쳐다본다. 요즘 같이 한류, 특히 싸이가 대세일 때 갔다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달려 들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하겠나 내가 너무 일찍 다녀온 것을.

나를 쳐다보는 멕시코인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어 주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칼로 광장이 시끌시끌하였다. 무대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 밥을 먹는 등 마는 등하



고 내려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바로 ‘샤키라’ 콘서트가 열린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은 다른 남자의 여자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여신을 두 눈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의 저력으로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갔다. 스페인을 갔을 때도 느낀 것이지만, 확실히 히스패닉의 정열이란 느껴야만 알 수가 있다. 샤키라의 목소리에 맞춰 처음 보는 사람과 춤을 추고, 함께 뛰며 정말 신명나게 놀았던 콘서트. 콘서트가 끝나고 데킬라를 얼마나 마셨는지 내가 어떻게 숙소에 와서 자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흥에 겨워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있겠지만, 내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멕시코 시티는 해발 2,240M 고원에 자리잡은 도시란 것을. 그래서 한 때 멕시코 시티에 있는 타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였고, 내가 몇 잔의 데킬라에 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가끔씩 멕시코를 여행했던 사진을 보면서 그 때 일면식도 없는 멕시코인들과 나누었던 열정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지금은 나와 같은 곳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나의 열정을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KC뉴스레터팀에서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KC 임직원 여러분들은 뉴스레터 편집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안내			
구분	하나로	다소니	가족사랑카드
이용대상	만26세이상	만26세이상 (동반자는 나이제한 없음)	가족(직계존-비속) + 회원이 희망할 경우 친인척 포함 가능
이용인원	1명	2명	2명 ~ 8명
유효기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3월	사용 개시일로부터 3월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이용가격	56,000원/1인	88,000원/2인	46,000원/카드 1매
대상열차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		KTX(가속석),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
이용방법	유효기간동안 입석 또는 자유석을 자유롭게 무제한 이용 좌석자정을 원할경우 유효기간 중 KTX 포함 전 열차(KTX-청호 제외)의 좌석을 10%할인(어른에 한함)된 가격으로 이용 (편도2회에 한함)		유효기간 내에 출발하는 일반열차 운임의 20% 할인(어른 기준), KTX가속석(40%) 우선 예약권
운영기간	연중 (대수송기간 제외)		
판매기간	사용개시일 7일전부터 판매		

* 하나로와 다소니는 열차지면보상 및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기차여행

겨울방학을 맞이한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겨울하면 스키장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이번 겨울은 조금 특별하게 가족끼리 기차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계란과 사이다. 고전적인 간식을 준비해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따뜻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 이번 겨울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내일로 티켓

만 2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의 자유석 및 입석을 연속 7일간 요일 구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기차여행 상품. KTX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편도 2회 이용 가능하다. (토, 일 제외) 홈페이지(railro24.net)으로 접속하면 내일로 티켓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각종 혜택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2. 가족사랑카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KTX 가족석'에 대해 우선 예약권이 부여되며 40%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드 구입 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자유여행패스' 코너에

서 가족을 등록하고 연회비(4만 6천원)를 결제한 후,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창구에서 카드 발급을 해준다.

3. 하나로/다소니 카드

만 26세 이상의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 인원이 1명일 경우 하나로, 2명일 경우 다소니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사용 개시일로부터 3일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의 입석 또는 자유석을 자유롭게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여행 패스이다.

취재 이상한 사원



CHAN's Espresso Bar

커피만으로 이렇게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해주는 진정 커피를 위한 공간

전세계적인 바리스타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국내의 로스터나 바리스타들이 가야할 길에 대한 모범사례가 되는 팀 뎀볼드의 원두를 사용하는 말뿐인 커피 전문점이 아닌 진짜 커피 전문점. 물론 팀 뎀볼드의 손길을 맛보고 싶다면 노르웨이에 있는 그의 가게를 찾으면 되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커피의 맛을 알려주는 곳. 오로지 커피만을 파는 이곳이 과연 장사를 하기 위한 곳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한 번 CHAN'S의 커피를 맛 본 사람이라면 커피BAR에 앉아 커피에 대해 논하고 싶어지리라. 보기만 해도 오일리한 느낌이 드는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넣어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상큼한 레몬맛이 입안 전체에 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부드러운 첫 맛과 약간 톡 쏘는 듯한 신 맛으로 마무리되는 카페라떼, 원두의 힘인가. 이곳의 커피는 입안에 다채로운 맛과 향, 그리고 여운을 남긴다.

취재 이상한 사원



Grill5taco

흥겨운 음악 속에 맥주와 쫄쫄한 치즈가 곁들여진 타코가 있는 곳



가로수 길의 그 명성 그대로 홍대로 진출한 그릴 5 타코. 주문과 동시에 손님이 보이게 바로 만들어 주는 오픈 키친은 보는 이로 하여금 민망함을 무릅쓰고 침을 꿀꺽 삼키게 한다. 아마 이 곳에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는 이름도 어려운 메가 크런치 스킨니 프라이즈가 아닐까 생각한다. 쫄쫄한 치즈가 바삭한 감자튀김 위에 뿌려져 맥주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메뉴. 그리고 한국인의 자랑 김치가 들어가 느끼함을 감쪽같이 잡아주는 김치 퀘사디아! 그렇다고 멕시코 요리인 오리지널 타코도 입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마음 맞는 사람과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맥주 한잔을 기울이고 싶을 때, 거하지 않게 간단히 한 잔하고 싶은 날, 이 곳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취재 이상한 사원

すききらい 좋아함과 싫어함

A この間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코 노아이다와도 - 오 마리 카도 - 고 차 이 마 세 하.

お礼に何かごちそうしたいんですが。
오 레 - 니 네 카 고 지 소 - 시 하 인 데 스 가.

B それはうれしいですね。
소 레 와 우 레 시 - 데 스 네.

A 何かすききらいはありますか。
니 네 카 스 키 키 라 이 와 마 리 마 스 카.

B あ、お肉は好きじゃないんです。
아, 오 니 무 와 스 카 자 니 인 데 스.

A じゃ、おすしにしましょうか。
자, 오 스 시 니 시 마 쇼 - 카.

본문해설

A 요전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보답으로 무언가 대접하고 싶은데요

B 그것 참 고맙네요

A 무언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있나요?

B 아, 고기는 좋아하지 않아요.

A 그럼, 초밥으로 할까요?

my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결심.

- You should not forget your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을 잊지 마.
- My New Year's resolution did not last one month. 내 새해 결심 한 달도 못 갔어요.
- I will go to bed at a reasonable time. 난 적절한 시간에 잘 거예요.
- I will be friendly to people who need me. 나를 필요한 사람과 친하게 지낼 거예요.
- I will try to do physical activities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거예요.
- I will wash my hands before eating. 먹기 전에 손을 씻을 거예요.
- I will take care of my health with nutrition.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서 건강관리 할겁니다.
- I will make efforts to grasp people.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거예요.
- I will encourage people to have meaningful lives.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격려 할거예요.
- I will volunteer in the neighborhood. 난 이웃지역에 자원봉사 할겁니다.
- I will spend more time with family members. 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 I will quit smoking. I will stamp out my smoking habit. 나 담배 끊을거예요.
- I will write and send one encouraging note. 격려 있는 메시지를 쓰고 보낼 거예요.
- I will relax more, worry less and not take things so seriously. 난 더 좀 쉬고 걱정 않고 어떤 일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 I will use my smart phone less. 스마트폰을 덜 사용할거예요.
-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become active in research. 내 계획은 리서치 하는데 좀 활 발해지는 거예요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KC 뉴스레터